

2008년 하반기 북한 정세 분석
('08년 7월~12월)

2009. 1

2008년 하반기 북한 정세 분석 (’08년 7월~12월)

2009. 1

최진욱 (북한연구실장)
임순희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전현준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정영태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조정아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최수영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
니다.

목 차

I. 서론	1
II. 대내동향	2
1. 정치 분야	2
2. 경제 분야	9
3. 사회·문화 분야	22
4. 군사 분야	33
III. 북핵 및 대외동향	38
1. 북·미 관계	38
2. 북·중 관계	39
3. 북·일 관계	41
4. 북·러 관계	42
IV. 대남 동향	46
1.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 발생	46
2.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하여 강력 항의	46
3. 개성사업 부분 차단 조치	47
4.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 촉구 지속	47
5.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 강화	48
6. 소 결	48
V. 종합 평가	51
1. 내부 결속 도모	51
2. 대미관계 올인	52
3. 대남 긴장	53

표 목 차

<표 II-1> 김정일 경제부문 현지도(2008.8.8 기준)	10
<표 II-2> 북한의 식량 생산량 및 수요량	14

I. 서론

- 2008년 하반기는 대내적으로 김정일의 건강악화로 북한이 매우 긴장된 시기를 보냈으며, 대외적으로 테러지원국 해제라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대남관계에서는 기싸움이 계속되었음.
- 김정일의 건강이상설이 나오자 국제적으로 북한정권 위기설이 확산되는 등 북한 당국을 긴장시켰음.
 - 시간이 지나면서 김정일의 건강을 과시하였으나 갖가지 권력 투쟁설, 후계자설이 난무하고 사회통제 조치가 강화됨.
- 대미관계에서는 테러지원국 해제라는 성과를 거두었고,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으로 북·미관계 진전의 모멘텀이 유지되기를 기대함.
 - 그러나 검증합의서 도출에 실패하고 오바마 정부 역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표명하는 등 낙관은 이룸.
- 대남관계에서는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개성공단 차단조치 등으로 긴장이 더욱 고조되면서 앞으로의 전망에 관심이 집중됨.
 - 북한은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2009.1.17)을 통해 군사적 협박
- 본고는 북한 정세를 대내, 대외, 대남 분야로 나누어 분야별 동향을 분석하여 대북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II. 대내동향

1. 정치 분야

가. 김정일 ‘와병’과 권력 안정

- 김정일 위원장은 8월 중순경 일시적으로 ‘가벼운 뇌졸중’ 증세를 보임.¹⁾
- 서방 및 남한 언론의 김 위원장 건강과 관련한 각종 분석·전망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에서는 어떤 ‘이상 징후’도 보이지 않았고, 8월 26일에는 ‘핵불능화 중단 선언’이 나오는 등 매우 정상적인 정치적 행보가 이어졌음.
- 2008년 하반기 내내 국내외적으로 김 위원장 ‘와병’과 관련해서 ‘사망설’부터 ‘중병설’까지 다양한 분석이 등장하였으나 김 위원장이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62주년을 맞아 김일성종합대학팀과 평양철도대학팀간 축구경기를 관람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10월 4일 보도함에 따라 ‘김 위원장 건강 심각설’은 서서히 힘을 잃어갔음.
- 이후 김 위원장은 9월을 제외하고 10월 2회, 11월 8회, 12월 13회 등의 현지지도를 실시하였고, 12월 24일에는 평안남도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를 시찰, ‘천리마 대고조의 봉화를 치켜올릴 것’을 강조함으로써 2009년부터는 50년대식 노력동원이 진행될 것을 예고 하였음.
 - 그는 시찰에서 “2012년까지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끼려는

1) 『중앙일보』, 2008년 9월 10일.

것은 당과 인민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라면서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에서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봉화를 치켜올릴 것”을 주문하고,

- “강성대국 대문을 열 기간은 이제 불과 4년 밖에 남지 않았고, 또 허다한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야 하지만 인민의 창조력과 새 기술로 장비된 주체공업의 뒷받침이 있는 한 승리는 확정적”이라며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에 더욱 억세진 자력갱생의 위용을 발휘해 강성대국 건설을 앞당겨야 한다”라고 강조

나. 예년 수준의 김 위원장 ‘현지지도’²⁾

- 2008년 한해동안 김 위원장은 총95회의 외부활동을 벌인 것으로 집계돼 ‘건강이상설’ 속에서도 2007년 86회, 2006년 99회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음.
 - 그는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진 것으로 알려진 8월 중순 이후 50여일간 두문불출했으나 건강이 상당히 회복된 11월부터 비교적 활발하게 시찰·관람 등의 외부활동을 재개
 - 이에 따라 그의 2008년 현지지도는 상반기 49회, 하반기 46회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
- 김 위원장의 2008년 공개활동은 군부대 시찰 및 군관련 행사 참석이 51회로 54%를 차지하고, 경제분야 현지지도 27회(28%), 공연관람 등 기타활동 12회(13%), 외빈 면담 등 대외활동 5회(5%) 순이었음.
 - 월별로는 5월이 20회로 가장 많고 8월 14회, 12월 13회, 7월 9회, 1월과 11월 각 8회, 4월 7회, 2월과 10월 각 2회, 3월 1회 순이며,

2) 다음 내용은 『연합뉴스』, 2009년 1월 6일.

9월에는 외부활동이 전무

- 9월과 10월이 저조한 것은 김 위원장이 8월 14일 군부대 시찰 보도 이후엔 정권수립 60주년(9.9) 기념행사에조차 불참할 정도로 건강에 이상이 발생했기 때문

○ 북한 언론에 보도된 김 위원장 공개활동의 수행인물로는 총 34명이 등장하였는 바, 현철해 총정치국 상무부국장이 52회로 가장 많고, 리명수 국방위원회 행정국장 46회,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국장 11회, 김명국 총참모부 작전국장 10회, 김격식 군총참모장 9회 등으로 군부인물의 수행비중이 높아 ‘선군정치’를 반영하였음.

-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은 3회, 정태근 총정치국 선전담당 부국장은 1회 수행

○ 노동당에서는 김기남 비서가 21회로 단연 많고, 김 위원장의 매제 장성택 행정부장 14회, 박남기 계획재정부장 11회, 리재일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과 리제강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각 9회,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8회, 주규창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7회 등이었음.

○ 리용철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과 최태복 비서는 각 4회, 김중린 비서는 2회이며, 지방 시찰의 영향으로 박도춘 자강도당 책임비서 11회, 김평해 평북도당 책임비서는 5회를 기록했음.

- 특히 리재일, 리제강 제1부부장은 상반기엔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다가 하반기에 자주 수행했으며, 장성택 부장도 상반기에는 4회에 머물렀으나 하반기에 10회, 주규창 제1부부장도 상반기 1회였다가 연말 들어 6회를 기록

- 내각에서는 강석주 외무성 제1부장이 8회로 가장 많고 김영일 외무성 부장이 1회였고, 차승수 조선중앙방송위원장이 연말에 3회, 김경옥 제1부부장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인물로 마지막 공개활동인 국립교향악단 공연(12.28) 관람에 수행해 관심을 끌었음.

다. 장성택의 부상과 ‘위임통치’

- 김 위원장의 건강약화 이후 중요한 군사문제를 제외한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당중앙위 행정부장인 장성택이 ‘위임통치’를 한 것으로 추론됨.
- 2005년말 경 복권된 장 부장은 북한 내 비리척결에 앞장서 왔었고, 이를 통해 김정일 위원장의 신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 향후에도 그는 북한체제 안정화를 위해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북한의 유일체제적 속성상 장 부장은 철저히 ‘대리인’의 역할을 할뿐 김정일 위원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동은 하지 못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현재로서는 장 부장이 ‘후계자’가 된다면 ‘제2인자’가 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라. 주요 인물 변동

- 통일부는 2009년 1월 6일 2008년 하반기 이후 북한 내각의 장관 5명이 교체된 사실이 북한 매체를 통해 확인됐으며, 그 외에도 2~3

개 부처 장관이 바뀌었다는 미확인 소문이 있다고 밝힘.

- 통일부가 확인한 장관은 2008년 10월께 파악된 전길수 철도상, 김광영 임업상, 김태봉 금속공업상, 허택 전력공업상, 김창식 농업상 등임.
 - 이들은 주로 내부 승진자들로서 전길수 철도상은 철도성의 참모장, 허택 전력공업상은 수풍발전소 기사장을 각각 역임한 것으로 확인됐고, 김광영 임업상과 김창식 농업상은 각각 소속 부처에서 부상(차관)을 지낸 경력이 있으며, 김태봉 금속공업상은 부령합금철공장 지배인을 역임

- 한편 10월 28일 항일혁명 투사였던 박성철(95) 노동당 정치국 위원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이 사망하였고, 12월 9일에는 역시 항일혁명투사였던 위인찬이 사망했음.
 - 박성철은 북한이 ‘혁명 1세대’라고 부르는 인물군의 한 사람으로, 고 김일성 주석의 유일사상체계 및 노동당 유일지도체계 구축에 기여한 최측근 중 한 사람으로서 1934년 4월 항일유격대인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해 김일성과 함께 활동하다 광복 후 1945년 8월 입북했으며, 6.25전쟁 때 군사단장, 해군사령부 부사령관, 최고사령부 정찰국장의 직책을 가졌었음. 전후에는 불가리아주재 대사와 외무성 부상, 당 국제부장, 내각 부수상 겸 외무상을 지내며 외교분야에서 활동했으며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성사의 주역

마. 비정상적인 정치일정

- 당초 2008년 8월이나 늦어도 11월에는 실시할 것으로 예상됐던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지 않은 채 넘어감.

- 북한은 2003년 8월 3일 임기 5년인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 687명을 선출했기 때문에 2008년 7, 8월에 차기 대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았음.
 -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과거에는 임기 5년에 관계 없이 들쭉날쭉 치러왔으나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고 1998년 김 위원장이 통치하기 시작한 이후 10기와 11기 사이에선 5년 임기에 맞춰 선거가 실시
 - 북한은 1998년 7월 26일 제10기 선거와 곧 이어 소집된 제10기 1차 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김정일체제 1기’를 출범시킨 데 이어 5년 만인 2003년 8월 3일 제11기 선거를 치른 후 ‘김정일체제 2기’를 정상적으로 작동
-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치르지 않은 이유는 김정일 건강문제와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제12기 대의원선거는 북한이 고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0회 생일을 맞는 2012년을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로 잡고 있는 상태에서 ‘김정일체제 3기’가 출범되는 것이어서 정치적 의미가 클 것으로 전망됨.

바. 새로운 주민동원 운동 개시

- 김 위원장의 12월 24일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현지지도 이후 북한은 ‘강선의 봉화’라는 구호를 제시 1950년대 말부터 주민동원을 위해 제창했던 ‘천리마 운동’을 다시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임.

- 노동신문은 12월 30일 ‘강선의 본때로 용감무쌍하게 앞으로’라는 제목의 장문의 ‘정론’에서 “천리마의 고향 강선에서 위대한 불길이 타올랐다”며 처음으로 ‘강선의 봉화’를 언급했음.
 - 이 신문은 천리마제강 종업원들이 28일 쫓겨모임을 열어 북한 전역의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편지를 채택한 것에 화답하는 형식의 정론에서 “위대한 장군님 몸소 지펴주신 강선의 봉화는 혼연일체의 봉화”라며 김 위원장과 주민간 ‘혼연일체’를 강조
- 이에 따라 2009년부터 ‘강선의 봉화’가 북한의 새로운 주민동원체제의 화두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됨.
 - 북한은 1994년 김 주석 사망 후 1998년 헌법 개정을 통해 김정일 체제가 공식 출범할 때 ‘강성대국(사상, 군사, 경제강국)’론을 들고 나오면서, 경제 복구를 위한 동원 슬로건으로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성강의 봉화’, ‘낙원의 봉화’, ‘라남의 봉화’ 등을 제시

사. 소결

- 2008년 하반기 북한 정치는 ‘김정일 와병’으로 인해 불안정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했으나 평소 다져진 유일체제로 인해 큰 소요없이 지나갔음.
- 김정일 위원장은 10월 4일 이후 예년 수준의 현지도도를 실시, 자신과 관련된 각종 소문을 잠재우고 건재를 과시하였으며 12월 24일에는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평안남도 남포시) 시찰을 계기로 새로운 경제 구호인 ‘강선의 봉화’를 제시하고 자력갱생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을 독려함.

- 김 위원장 ‘와병’에도 불구하고 장성택 당중앙위 행정부장의 위상이 제고된 것 외에 후계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나 징후는 보이지 않았는 바, 향후 상당기간동안 김 위원장 직접통치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분야

- 북한은 2012년까지 강성대국 진입을 위해 2008년에도 방위력 강화를 위한 보장사업을 최우선시 한다는 기조 하에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하반기 경제를 운용한 결과 대체로 경제성과는 전 분야에 걸쳐 다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제개혁은 후퇴하고 있음.
 - 6자회담의 진전 움직임에 따른 에너지 관련 물자의 지원 획득 및 북한시장에 대한 국제 투자자들의 관심 증대
 - 특히 선행부문의 전력·석탄 생산, 식량 생산 그리고 대외무역 부문에서 실적 증가
 - 대중 의존 심화되고 러시아·EU·중동국가와의 경제관계는 확대되었으나 일본·태국과의 무역은 감소
 - 자력갱생이 강조되고 시장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는 등 경제개혁은 후퇴, 혁명적 대고조 추진 시사
- 북한 당국이 주장하는 산업생산의 회복(선행부문과 인민소비품 생산에서 목표를 상회)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이 존재함.
 - 6자회담의 1, 2단계 조치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국은 40만 톤 이

상의 중유를 북한에 제공(미국은 올해 6월까지 총 13만 4천 톤의 중유 지원)

* 대북 중유(에너지)지원으로 북한경제에 일정 정도 산업생산 증대효과 가능(2000년대 북한의 연간 원유도입량은 60만 톤 내외)

가. 대내경제 동향

(1) 김정일 현지도

- 김정일 위원장은 건강이상설이 나오기 전까지 경제부문에 대한 현지지도 총 18회 실시하였음.
 - 예성강 청년1호발전소 현지도(1.6)
 - 강계시 일원 여러 곳(자강도산림과학연구소, 자강도공업립사업소 시험양묘장, 강계식료공장, 강계은하피복공장 등) 현지도(7.3)
 - 함경북도 함주돼지공장과 함주평풍덕염소목장 현지도(8.8)

<표 II-1> 김정일 경제부문 현지도(2008.8.8 기준)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전체 횟수	55	56	69	40	68
경제부문 횟수	5	5	5	9	18
경제부문 비율	9.1%	8.9%	7.2%	22.5%	26.5%

- 김정일은 11월 말부터 현지지도를 재개하면서 건강이상설에 따른 주민들의 동요 방지 및 체제 불안 요소를 불식시켰음.
 - 평안북도 신의주의 낙원기계연합기업소와 신의주화장품공장 비누직장 현지도(11.25)

-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현지지도(12.24)

(2) 생산성과 및 현대화 선전

- 북한은 2009년 상반기 경제계획을 초과달성했다고 선전하였으나 과거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고 있음.
 - 전력공업(105.9%), 석탄공업(101.7~107.2%), 철도수송(100.3%), 금속공업 등 인민경제의 중요부문 단위들에서 상반기 계획 초과 달성
 - 인민소비품 생산은 2007년 상반기 대비 1.4배 성장
 - 편직(117%), 비단(116%), 방직기계(105%), 일용공업관리국(104%) 등도 상반기 계획 넘쳐 수행

- 북한은 공장, 연합기업소 등에서 생산공정 개선 및 현대화를 비롯한 대표적인 경제성과를 소개하고 있음.
 - 대표적인 경제성과: 대계도 간석지 1호 방조제 공사 완공, 2.8비 날론기업소와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생산공정 현대화, 검덕광업 연합기업소와 사리원방직공장의 증산

- 북한은 2008년 하반기에도 경제 각 부문의 생산실적 및 현대화 추진 성과를 단편적으로 보도하였음.
 - 경공업: 평양방직공장·원산방직공장·사리원방직기계공장·신천기계공장·평양기료품공장 등 현대화, 2.8비날론연합기업소 2단계 개선공사 마감단계, 평양빛섬유케이블공장은 체신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에 매진, 평양일용품공장·신의주신발공장·함흥영예군 인수지일용품공장 등 생산공정 현대화 진행, 경공업성 신발공업

관리국 산하 각 지역 신발공장의 생산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1.5 배로 증가(평양구두공장·만경대구두공장·류원신발공장·평양신발 공장·강서신발공장·안주신발공장·신의주신발부속품공장 등 생산실적 증가), 평양시 경공업부문(평양방직공장·평양제사공장·평양일용품공장·평양기료품공장·평양편직바늘공장·평양화장품 공장 등) 생산공정 현대화

- 전력공업: 대규모 수력발전소인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원산청년 발전소·금야강발전소 등 건설공사 진척, 원산청년발전소는 건설이 마감단계에 있고 2단계 건설이 진행, 영월발전소(평안남도 영월군) 조업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 전개, 수풍발전소 발전설비 현대화 추진, 예성강 청년1호 발전소 준공식 진행(10.3), 고보청년 발전소(자강도 위원군 고보리)를 건설하고 조업식(11.18) 진행, 동평양화력발전소의 1호·3호 보일러 및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의 2호·7호 보일러 보수
- 석탄공업: 2007년 같은 시기(12월)보다 약 120%의 석탄 생산, 중소탄광국 차원의 연간 생산계획을 10월말에 초과 수행, “순천과 덕천, 북창과 개천, 득장지구의 대규모 탄전들은 물론, 강동과 구장, 천내지구와 북부지구의 탄광들의 증산” 언급
- * 보도대로라면 북한의 2008년 석탄 생산량은 2006년 수준(2,468만톤)을 상회할 것으로 판단(2007년에는 수해로 생산량이 감소한 2,410만 톤)
- 금속공업: 우리 식의 주체철 생산 방법 및 생산공정들의 기술개건사업 추진(김책제철연합기업소·황해제철연합기업소·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등 개건사업), 금속공업성 국장은 2008년 철광석 생산이 전년 대비 73% 증가 및 철강재 생산실적도 2007년 같은 기간에 비해 29% 증가하였다고 발표(12.21)

- 기계공업: 기계공업성은 생산이 2007년 이맘때(8월)보다 1.2배로
 장성했다고 생산실적 선전,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희천공작기
 계를 비롯한 공장들에서 기계생산 증가,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에서 새로 건설된 ‘超高電力 전기로’ 조업식(10.31) 진행
 - 채취공업: 검덕광업연합기업소 광석운반계통 능력확장공사 완료
 및 조업식(8.26) 진행
 - 지질탐사: 각 지역(평안남도, 황해남도, 강원도, 양강도 남사강,
 함경남도 남사강 및 수문, 평안북도 선천 지질탐사대) 지질탐사
 대가 탐사사업을 활발하게 추진
 - 건설건재공업: 박영수 건설건재공업부 부국장은 2008년 1~9월
 동안의 시멘트 생산량이 2007년 생산량 대비 30% 증가, 건설건
 재공업부문의 주요 목표 달성 및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에 역량
 집중을 발표
 - * 북한의 2007년 시멘트 생산량은 612.9만 톤으로 추정되므로,
 2008년 시멘트 생산량은 700만 톤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의료기구공업: 보건성 정정길 국장은 2008년에는 2007년 대비 의
 료기구공업의 생산이 120%로 장성 발표, 기술갱신이 국가적인
 사업(국가투자에 의하여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국
 가과학원, 평양기계대학의 연구사들을 동원)으로 추진
 - 토지정리 및 살림집 건설: 지난 10년 동안 수십만 정보의 토지가
 정리되어 수천 정보의 새 땅 확보, 평양 만수대거리에 1,000세대
 규모의 살림집 건설 본격적으로 추진
-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와 전국 8월3일인민소비품전시회를 개최
 하였음.
- 제4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가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

- (9.22~25): 40여개의 북한 기업과 중국, 러시아, 덴마크, 독일, 싱가포르 등 15개 국가 111개의 기업 등 총 150여개 기업이 참여
- 평양 경공업성 중앙경공업제품 견본관에서 전국8월31일인민소비품전시회를 진행(10.21~25)

(3) 식량사정은 2002년 이후 가장 심각

- 2008년 상반기 북한의 식량수급은 작황 부진, 국제사회의 지원 감소 등으로 2002년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임.
 - 식량 수요량은 변화가 없으나 2007년 수해로 인한 국내 생산량 감소(약 50만 톤)가 주된 원인
 - 시장 통제에 따른 식량 유통 문제 및 일부 매점매석 등도 주민들의 식량 조달을 제약
 - 그러나 대규모 기근의 징후는 없는 것으로 판단

<표 II-2> 북한의 식량 생산량 및 수요량

(단위: 만 톤)

	2000/01	2001/02	2002/03	2003/04	2004/05	2005/06	2006/07	2007/08
국내생산량	359	395	413	425	431	454	448	401
수요량	613	626	632	639	645	651	650	650

- 그러나 2008년 풍작으로 식량사정은 호전될 것으로 전망됨.
 - 하반기 들어와서 외부관찰자들은 2008년 북한의 식량생산 및 내년도 식량사정과 관련해 비관적에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전환
 - 북한 당국은 감자 풍년에 힘입어 2008년 식량생산이 2007년 대비 17%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

- 북한 농업성 대외협력국장 리일섭은 2008년 수확량이 468만 톤 (2007년 408만 톤), 감자 수확은 헥타르 당 92톤으로 전년보다 7톤 증가 및 콩 작황도 좋다고 언급
- 국제농업기구(FAO)도 북한의 곡물생산이 증산(170만 톤) 전망

(4) 경제개혁의 후퇴 및 혁명적 대고조 시사

- 북한은 2001년부터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을 앞세우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목표(경제강국)를 달성하기 위해 인민경제의 개진·현대화와 함께 사회주의 경제관리 개선을 추진해 왔음.
 - 사회주의 경제관리 개선의 핵심은 시장의 확산과 기업개혁(자율성 제고)
- 그러나 2006년부터 시장에 대한 부분적인 통제를 시작으로 2008년 들어와서 통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음.
 - 이전에는 시장 참여자에 대한 나이 제한 등을 두어 시장행위를 통제
 - 그러나 2008년 7월 이후 평양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비사회주의 타도 그루빠’를 결성하여 무분별한 시장행위를 철저히 단속
 - 9월에는 시장에서 음식장사를 금하고, 알곡(옥수수)으로 술을 만들어 팔거나 시장과 봉사망 등지에서 술을 판매하는 것이 적발되면 농촌으로 추방하라는 지시 하달
 - 2009년 1월 1일부터 매일 3일만 시장을 열도록 하는 지시문을 하달함(시행이 6개월 연기됨).

- 또한 북한 공식문건들은 기업에 대한 재정 통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음.
 - 이런 주장은 2002년 7·1조치 이후 본격화되었던 기업에 대한 재정과 금융부문에서의 상대적 자율성 보장조치와 배치
 - * 북한당국의 시장통제 강화와 병행해서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혁의 후퇴를 암시

- 북한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서방의 경제원조설·협조설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새 사회 건설’ 과정에서 자력갱생과 남남협조의 중요성을 강조함.

- 최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성과를 강조하고, 이를 통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하는 등 동 운동의 활성화를 촉구하고 있음.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966호를 통해 69개 단위에 대한 3대혁명붉은기 수여를 실시하면서 동 운동의 활성화를 강조

- 북한은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봉화를 지펴 올릴 것을 호소하고 있음.
 - 김정일은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를 현지지도(12.24)를 통해 혁명적 대고조의 봉화를 지필 것을 호소
 -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키기 위한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종업원 께기 모임 개최(12.28)
 - “강선의 본때로 용감무쌍하게 앞으로! -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봉화를 추켜든 강선 노동계급의 편지에 화답하여” 제하의 노동신문 정론 발표(12.30)

나. 대외경제 동향

(1) 대중 무역 및 경제의존 심화

- 2008년에도 북·중 무역은 급격히 증가해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이 한층 심화되고 있음.
 - 중국과의 무역은 10월말 현재 2007년에 비해 31.6% 증가
 - 2008년 1~9월 북·중 무역은 2007년 수준에 육박: 2008년 3/4분기 까지 북·중 무역은 18억 9,755만 달러로 2007년 총교역규모 19억 7,397만 달러의 96% 수준에 도달(중국의 대북수출은 12억 9,935만 달러로 29.3%, 수입은 5억 9,820만 달러로 36.7% 증가)
 - 중국의 주요 수입품목은 광, 슬랙 및 회(HS 26), 광물성 연료(HS 27) 등 지하자원, 주요 수출품목은 광물성연료와 광물류(HS 27), 원자료와 보일러 기계류(HS 84) 등
 - 양국 접경도시(단둥, 투먼, 훈춘, 창바이, 썬허)를 통해 이루어지는 민간 변경무역은 감소
 - 반면 연변조선족자치주의 대북 무역은 급성장: 9월까지 수출입액은 3억 3,432만 달러로 83% 증가(수출은 1억 5,971만 달러로 47%, 수입은 1억 7,462만 달러로 135% 증가, 수입액 증가는 7월 전에 강재, 철광분 등 원자재 가격 인상에 기인)
- 북·중 무역은 확대되는 반면 일본 및 태국과의 무역은 감소하고 있음.
 - 대북경제제제가 지속되어 2008년 1~9월 북·일 무역은 2007년 같은 기간 대비 감소: 북한의 대일 수출은 2007년에 이어 전무, 수입(일본의 대북수출)은 1~9월까지 644,084천 엔으로 19.2% 감소
 - 북·태 무역은 2008년 상반기 5,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5.4% 감소: 수출은 1,800만 달러로 11.2% 감소, 수입은 3,500만 달러로 55.2% 감소

- 중국의 대북 투자 등 북·중 경제협력이 확대되고 있음.
 - 철도상 김용삼을 단장으로 하는 철도성 대표단이 1월 중국을 방문하여 양국간 철도협력 문제를 협의
 - 북·중 합영회사인 평양아명조명합영회사가 조업
 - 북한과 중국이 공동 투자한 평양백산담배합영회사가 평양에 설립
 - 북한과 중국은 압록강과 두만강 수문사업협조 회담록 조인(10.29)

(2) 러시아 및 EU와 경제협력 강화

- 북·러 양국은 정상회담(2000.7, 2001.8, 2002.8)을 통해 TKR-TSR 연결사업 및 철도 운수부문 협력강화에 합의하고, 관련 실무급 회의와 북한철도 실태조사 사업 등을 추진해왔음.
 - 8월 ‘나진 국제집합수송 합영회사(북·러 합영기업)’와 ‘동해철도련운회사(북한 철도성 산하)’ 사이에 나진-두만강 철도 임대계약 체결
 - 북·러 협력 차원에서 나진-하산 철도(54km) 및 나진항 개건사업 착공식 거행(10.4)
 - * 나진-하산 철도(연 400만톤 수송능력, 연 10만 개 컨테이너 수송능력), 나진항 3부두는 2010년 완공을 목표로 3단계로 진행 예정
- 프랑스 기업과의 합작으로 시멘트공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음.
 - 프랑스 Lafarge Sa는 상원시멘트공장 지분의 50%를 이집트 오라스콤건설회사로부터 인수

- * 북한이 북한내 투자한 외국기업간 지분·경영권 인수를 허용했다는 의미
 - 라파즈사는 상원시멘트 설비 현대화 및 시설투자 늘려 2010년까지 생산량 300만톤 이상으로 증산 계획
- 이 밖에도 EU와의 경제관계, 대외시장 진출, 해외 참관단 파견 등을 보도하였음.
 - 국제정세의 긍정적인 변화로 EU는 대북 경제관계 발전에 큰 관심을 표시
 - 개성고려인삼화장품인 ‘은하수’의 대외시장 진출 구상
 -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북한 사업설명회 개최(7월) 및 유럽 민간기업 시찰단 방북(9월)

(3) 중동국가와 경제관계 중시

- 북한 체신성과 이집트 오라스코텔레콤이 합작하여 설립한 체오합작회사의 제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선포식이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12.15)되었음.
 - 북한은 제3세대 이동통신의 호칭을 고려링크(KORYO LINK)로 발표
 - 체오합작회사는 금년 5월 제3세대 이동통신 관련 시범 서비스를 실시, 이후 평양시와 인근 지역의 통신망 구축을 위한 설비설치 등을 추진
 - 동 기업은 12만 6천명 대상 서비스가 가능한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서비스를 평양 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
 - 이집트 오라스코社는 북한과 정보통신 분야 이외에도 금융·수송

등의 분야에서도 경제협력사업을 추진, 북한의 무역은행과 협력하여 오라은행 개업(12.16)

- 쿠웨이트 아랍경제개발기금(Kuwait Fund Arab Economic Development)은 북한에 2,170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11.18)하였음.
 - 북한에 제공되는 2,170만 달러의 차관은 평양시 위생개선사업에 사용될 예정
 - * 쿠웨이트 아랍경제개발기금은 2002년 3월에도 평양시 상수도 개건 사업을 위해 대북 차관(2,170만 달러, 연이율 2%, 상환기간 24년) 제공

(4) 남북경제관계의 악화

- 2008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남북관계에 영향을 받아 남북교역은 점차 성장률이 둔화되는 추세로 전환되었음.
 - 남북교역은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까지는 지난해의 증가세가 지속
 - 그러나 하반기 들어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남북교역 실적은 2008년 11월말 기준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7% 증가
 - * 2008년 말 기준으로는 작년 수준에 미달할 것으로 추정
- 전반적인 남북관계 경색으로 정부의 3대 경제협력사업은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음.
 - 7월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 이후 금강산관광사업 중단
 - 12월 1일부터 개성관광 중단 및 문산-봉동간 철도 운행 중단, 개성공단 내 남측 인원 감축, 남북경협사무소 폐쇄 등

다. 소결

- 2008년 북한경제는 2006년과 2007년의 마이너스 성장에서는 벗어날 것으로 보임.
 - 북한이 선전하는 경제성과, 에너지 생산 증대(석탄, 전력) 및 외부 유입 확대, 농업부문에서의 풍작 등을 감안할 때 다시 저성장으로 회귀
 - 대외경제관계에서 남북경협 위축, 북·일 무역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는 이를 상쇄

- 그러나 기본적으로 북한의 경제건설 환경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2009년에도 높은 경제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 북한의 경제정책은 국방공업에 대한 자원의 우선 배분, 경제의 개건 및 현대화에 필요한 최신기술 및 외자유치의 어려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틀 속에서 제한적인 경제개혁 등은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
 - 특히 2009년에는 혁명적 대고조의 기치 아래 자력갱생이 강조되고, 경제개혁이 사실상 후퇴할 것으로 예측

- 북한경제의 건설 방향 및 성과는 대외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게 될 것임.
 - 6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문제 해결에서 큰 진전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경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 문제 해결과정에서 얻게 될 에너지 지원과 같은 경제적 반대급부는 북한의 산업생산 증대에 기여
 - 북·미 관계정상화 및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완전하게 체제보장을

북한 동북부의 함경북도와 양강도 전역 및 함경남도 일부 지역에서 ‘인도주의적 비상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발표⁴⁾

- 대북인권단체 ‘(사)좋은벗들’에 따르면 하반기들어 황해남도 태탄군 등 일부지역 농장들의 탁아소나 유치원 어린이들의 영양실조가 매우 심각한 상태이며 어린이들 사이에 수족구병이 확산된 것으로 알려짐⁵⁾.
 - 북한 보건성 당국이 전국에 수족구병에 대한 경계를 당부하는 지시 하달

- 세계식량정책연구소(IFPRI)⁶⁾의 ‘2008 세계 기아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1990~2008) 사이의 기아지수(GHI) 악화 순위에 있어 북한이 콩고 다음으로 세계 2위를 차지함⁷⁾.
 - GHI는 총 인구대비 영양부족률, 5살 미만 아동의 저체중률, 사망률 등을 종합한 수치로 북한은 18.8을 기록하여 심각한 수준으로 분류

- 만성적 식량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고는 시장 단속과 애국미·군량미 헌납운동으로 인해 보다 더 심화됨.
 - 여성들에 대한 장사 나이 제한, 상품통제, 매대 지정 등 시장 단속

4) WFP는 함경북도와 양강도 전역 및 함경남도 일부 지역의 식량난 등급을 ‘극심한 식량·생계 위기’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만성적인 식량난’과 ‘인도주의적 비상사태’ 사이의 단계, WFP Operational Priorities 보고서(2008.10.22); 『자유아시아방송』, 2008년 10월 25일.

5) 『오늘의 북한소식』, 제162호.

6)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IFPRI는 북한의 농업개발을 지원하는 아일랜드의 비정부기구 ‘컨선(Concern)’, 독일의 ‘저먼 애그로 액션(German Agro Action)’과 함께 세계 기아를 퇴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해마다 ‘세계기아지수’를 발표

7) 『자유아시아방송』, 2008년 10월 14일.

- 평성시에서 조직적으로 애국미 헌납운동이 전개된 후 평안남도 전역으로 확산⁸⁾
 - 함경남도·평안남도 지역의 각 농장들에서 군량미 헌납⁹⁾
- 2008년도 곡물 수확량이 전년대비 다소 증가하였음에 불구하고 유통구조의 난맥상으로 지역별 기아사태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됨.

나. 체제 결속을 위한 사상교양 강화

- 북미관계 변화 등의 대외적 상황 변화가 사회 내부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고, 지속적인 경제적 어려움과 시장 요소의 확산, 외부로부터의 정보 및 자본주의 사상·문화 유입으로 인한 주민들의 사상적 이완과 동요를 막기 위해 사상교양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음.
 - 사상교양의 주요 내용은 사회주의 사상교양, 선군혁명사상 교양, 혁명전통 계승, 김정일 위원장의 위대성과 그에 대한 충실성 교양 등
 - 김일성 사망 14주기(7.9) 추모 행사,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전원회의(7.22), 김정일의 선군영도 개시 48돌¹⁰⁾ 경축 중앙보고대회(8.24), 북한 정권 수립 60돌(9.9) 및 노동당 창당일(10.10) 기념 각종 경축모임과 행사를 통해 김일성·김정일의 치적을 부각하고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
- 김정일 위원장 와병설 이후에는 그에 대한 충성심과 일심단결을

8) 『오늘의 북한소식』, 제218호.

9) 『오늘의 북한소식』, 제245호.

10) 북한은 2005년(05.8.24 노동신문 정론)부터 김정일의 선군혁명영도 개시 시기를 1995.1.1 (다박술초소 방문)에서 1960.8.25(류경수 제105탱크사단 방문)로 소급하였음.

강조하는 사상교육을 한층 강화함.

-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장군님의 건강과 안녕은 곧 조국이고 민족이고 강성대국”¹¹⁾이라며 김정일의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
- 김정일 위원장이 9월 5일에 하달하였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 국가이다”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10월 10일에 발표하고, 담화문 학습과 담화 관철을 위한 실천운동 독려
- 담화의 주요 내용은 북한 정권 60년사를 개관하고 ‘선군정치’ 유지 방침을 밝히면서 국방력 강화와 경제건설을 강조하고 개혁·개방에 대한 거부 입장과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강조하는 것임.

○ 북미관계의 진전에 따라 주민들의 대미의식이 변화할 것을 우려하여 미국의 “유화전략”을 경계할 것을 촉구함.

- “유화전략은 당근과 채찍전술에 바탕을 둔 침략과 간섭전략”¹²⁾이라고 비판

○ 북한의 새 세대를 “강성대국 건설세대”로 규정하고, 사회주의 고수를 위해서는 새 세대의 혁명전통 계승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함.

- “혁명의 1세대를 몰라보고 그들의 공적을 무시하려는 사람들”, “환경의 변화와 시대의 추세를 운운하며 혁명 선배들이 목숨바쳐 개척한 투쟁의 길에서 탈선하려는 사람들”, “목전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선배들의 업적에 먹칠을 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¹³⁾을 혁명가 자격이 없는 배신자와 변절자들이라고 비난함

11) 『노동신문』, 2008년 9월 30일.

12) 『노동신문』, 2008년 8월 14일.

으로써 3, 4세대의 의식상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냄.

-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은 10월 31일과 11월 1일 ‘전국청년동맹 초급일꾼 열성자회의’를 개최하여 청년조직 강화문제를 논의
- 주민 사상교양 강화와 관련하여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숙 모자이크 벽화, 혁명사적 표식비 등 우상화 시설물 건립도 지속적으로 확대함.
 - 8월 자강도 고평군, 강원도 세포군, 황해남도 신원군 등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귀가 새겨진 모자이크 벽화 건립, 금강산 지구에 김정숙 형상화 모자이크 벽화 건립 등

다. 일탈행위와 시장에 대한 통제 강화

- 주민들 속에서 비사회주의적 일탈행위가 확산되고 외부로부터의 자본주의 문화 및 정보 유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주민동요와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강도 높은 통제가 지속되고 있음.
 - 특히 간부들의 밀수 및 마약 판매 개입, 뇌물 수수, 불법재산 은닉 등에 대한 경계와 처벌 강화¹³⁾
 - 대도시 및 국경연선 지역에서 비사회주의그루빠 검열, 불법녹화물에 대한 집중 검열 실시¹⁴⁾
 - 12월 18일 국가안전보위부는 남한 정보기관 요원에게 포섭되어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주민을 적발하여 체포하였다고 발표

13) 『노동신문』, 2008년 10월 21일.

14) 『오늘의 북한소식』, 제198호; 제208호.

15) 『오늘의 북한소식』, 제198호; 제206호.

- 주민 생활에서 시장 관련 부문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통제 조치가 실시되고 있음.
 - “장사로 생계를 유지하는 백성들이 무질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통제와 법규칙을 강화하고, 중앙당의 결정에 도전하거나 회피하는 현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쌀 가격 단속, 음식장사 금지, 시장 개장시간 및 횡수 단축 등 시장에 대한 통제 조치 시행¹⁶⁾
 -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하여 남강회사 함경북도 총사장 리홍춘 등 매점매석 혐의자 비공개 처형¹⁷⁾
 - 일부 지역에서는 시장 통제 강화 조치에 대해 단속원과 장사를 하는 주민들 간에 마찰 발생¹⁸⁾

라. 교육 ‘현대화’ 추진

- 9월 신학기부터 북한 전역에서 영어 및 컴퓨터교육을 종래보다 2년 앞당겨 소학교 3학년부터 실시하는 조치를 취하였음.
 - 이는 정보화, 세계화라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 차원에서 시행된 조치
- 고등교육 부문에서 대학 학과 통폐합, 화상강의 및 원격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고등교육의 세계적 발전 추세에 부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 김책공업종합대학의 80여개 학과를 30여개로 통폐합하고, 정보

16) 『오늘의 북한소식』, 제223호; 제248호.

17) 『오늘의 북한소식』, 제198호; 제215호.

18) 『오늘의 북한소식』, 제206호; 제210호.

공학, 나노공학 분야의 비중을 높임.¹⁹⁾

- 김책공업종합대학과 김형직사범대학 등을 중심으로 컴퓨터를 활용한 화상강의, 원격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활용을 확대
- 평양 인민대학습당을 비롯하여 자강도, 함경남북도, 평안북도 도서관을 전자도서관으로 개축하는 등 북한 전역의 도서관의 전자화 추진²⁰⁾

○ 국내외의 교육지원을 통해 교육 인프라를 복구하고 교육기자재 확보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추진하고 있음.

- 2005년에 설립한 ‘조선교육후원기금’이 올해 해외동포들과 30여 개국으로부터 설립 이래 가장 많은 후원을 받아 교사(校舍)·기숙사 건설 및 보수, 컴퓨터를 비롯한 교육설비 제공 등을 추진하였고, 향후 “교육의 질 향상을 담보하는 조건과 환경 조성”을 위해 평양 영어·컴퓨터 교원재교육강습소 건설, 농업대학·전문학교의 실험실습 조건 개선, 소·중학교와 교원대학, 사범대학의 외국어 교육 조건 개선 등에 주력할 것이라고 발표²¹⁾
- 북한 내부적으로도 당 및 행정기관 등 후원조직을 통해 학교시설 ‘현대화’를 위한 설비와 자재, 컴퓨터, 녹화촬영기 등 멀티미디어 교육 기자재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²²⁾

마. 평양 시내 환경 개선사업 추진

○ 2002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지시로 평양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 이래 지금까지 대동강변 미화, 주택 리모델링, 주요시설 조명 교체,

19) 『조선신보』, 2008년 9월 30일.

20) 『노동신문』, 2008년 11월 19일.

21) 『조선신보』, 2008년 12월 20일.

22) 『평양방송』, 2008년 12월 5일.

도시 인프라 정비 사업 등을 진행하였으며, 2007년 연말부터 ‘국제 도시화 계획’을 추진, 현재 상업거리 조성 등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 인천시의 지원을 받아 평양 시내 중심지인 창광거리에 2009년 4월 까지 종합전문식당가를 조성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 진행
- 평양 중심가 도로 재포장, 도로 주변의 건물 보수, 녹지와 가로수 정리, 경계석 보수 및 설치 등 추진²³⁾
- 7월에는 만수대거리 개선공사 착공, 개선거리, 칠성문거리, 모란봉거리, 문수거리를 비롯한 10여개 거리의 살림집과 상가 외벽 타일 공사 진행
- 만경대구역 광복거리를 녹화사업 시범단위로 지정, 2008년 가을 부터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진입, 2012년 4월까지 녹화사업 진행 예정
- 대형 대중목욕탕 문수원을 20여년 만에 대대적으로 보수
- 11월에는 16년간 공사가 중단되었던 평양 류경호텔 외벽유리 부 착공사 착수

바. 대 서방 문화예술 교류 성과 부진

- 상반기에 진행된 ‘뉴욕필하모닉교향악단’의 평양공연을 계기로 북한은 문화예술의 해외 홍보 및 대서구 문화예술 교류의 적극화를 시사 하는 일련의 계획을 추진한 바 있으나 기대에 못 미치는 미흡한 수준의 성과를 나타냄.
 - 9월 중순 예정되었던 ‘조선국립교향악단’의 영국 런던 공연은 재정을 후원하기로 했던 영국기업의 신용경색 때문에 무기 연기²⁴⁾

23) 『조선신보』, 2008년 7월 17일.

- 런던 공연에 이어 ‘답례공연’으로 추진되었던 ‘조선국립교향악단’의 뉴욕 공연도 해를 넘겨 2009년 3월 실시되는 방안이 추진 중²⁵⁾
- 북한은 ‘평양국제영화축전’(9.17~26)을 통해서도 서구사회와의 문화예술 교류 확대를 적극 모색함.
 - ‘평양국제영화축전’은 북한이 주최하는 유일한 국제영화제이며 1987년부터 2~3년 주기로 개최
 - 비동맹권과의 문화교류 증진을 위해 개최된 영화제로서 주로 비동맹국가와 발전도상국이 참가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서방권으로도 문호가 확대
 -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의 출품 및 수상

사. 주요 이벤트

□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아리랑) 공연

- 2008년도 ‘아리랑’공연은 2002년도 초연 당시의 기본 줄거리는 살리면서 ‘영변의 비단처녀’ 등 부분적 창작 또는 추가함²⁶⁾.
 -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영변의 비단처녀’(2장5경)를 창작·삽입하여 직포공들의 노동생활을 형상화함으로써 핵기지로 알려진 영변을 ‘비단생산기지’로 소개
 - ‘비운이 드리운 나라’(1장1경)의 배경 노래가 ‘봉선화’로 변화되는 등²⁷⁾ 배경노래와 무용도 변화

24) 『자유아시아방송』, 2008년 9월 4일.

25) 『자유아시아방송』, 2008년 11월 21일.

26) 『통일부 ‘주간동향’』, 제903호.

27) ‘아리랑’의 1장1경인 ‘비운이 드리운 나라’의 배경음악은 ‘눈물젖은 두만강’(02)

- 2008년도 ‘아리랑’ 공연은 정권수립 60주년을 맞아 새로 만든 집단체조인 ‘번영하라 조국이어’와 함께 병행하여 공연됨.
 - 평양 룡라도 5월1일 경기장에서 ‘아리랑’(8.4 개막)은 밤 공연, ‘번영하라 조국이어’(8.12 개막)는 낮 공연
 - 서로 다른 내용의 집단체조를 일정 기간 낮·밤으로 병행 공연한 것은 북한체제의 문화적 우월성과 체제결속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장기간의 경제난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사상적 이완 방지 및 주민결속 강화를 의도
- 북한은 고 김일성 주석의 출생 100주년이 되는 2012년 4월 새로운 집단체조를 선보일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일반 ‘아리랑’ 공연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짐²⁸⁾.

□ ‘인구일제조사’(인구주택총조사) 실시

- 유엔인구기금(UNFPA)의 후원 아래 제1차 인구조사(1993) 실시 후 14년 만에 인구주택총조사(10.1~15)가 실시됨²⁹⁾.
 - 북한 전역에서 현장조사 요원 3만5천200명과 지도요원 7천500명을 동원해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나이, 성별, 결혼여부, 가족수, 가족 구성원의 직업, 개인소득, 가구와 가전제품 목록, 교육수준, 국가내 이동, 장애 유무, 출생률, 사망률, 화장실 유무, 난방과 상하수도 유무 등 총53개 문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
 - 조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UNFPA 요원 12명도 조사에 참여

→‘타향살이’(07)→‘봉선화’(08)로 변화

28) 『자유아시아방송』, 2008년 9월 20일.

29) 『연합뉴스』, 2008년 9월 30일.

- 이번 조사 비용 550만 달러가운데 400만 달러는 한국 정부가 지원
- 인구조사 중간결과는 12월, 최종 결과는 2009년 3·4분기에 나올 예정
- 노동신문은 ‘인구일제조사’의 목적과 관련하여 “나라의 인구상태를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장악해 사회관리에 이바지하고 경제문화 건설의 여러 분야의 사업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인구 및 사회경제적 자료를 얻으려는데 있다”³⁰⁾고 밝힘.
- 대북인권단체 ‘(사)좋은벗들’에 따르면 인구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북한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³¹⁾.
 - 1990년대 중반 이래 심화, 지속되고 있는 경제난으로 인해 북한 여성들의 출산율이 감소 추세를 나타냄에 따라 북한당국은 여성들에 대해 다산을 장려하고 있으나 생활고를 이유로 여성들은 출산을 기피

아. 소결

- 주민들의 식량 문제, 시장 요소의 증가, 주민들의 잠재적 불만 증대, 외부로부터의 정보와 서구문화 유입에 따른 사상적 이완 등 현재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현상들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 당국이 대외적 변화와 경제적 사정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의 수위를 조절해나갈 것임.
 - 북미관계, 남북관계를 비롯한 대외관계가 개선되고 경제적 상황

30) 『노동신문』, 2008년 9월 21일.

31) 『오늘의 북한소식』, 제252호.

이 호전된다면, 대내적으로는 주민에 대한 사상교육과 통제를 더 한층 강화할 가능성이 큼.

- 특히 최근 식량 공급 상황이 나아질 때마다 지속적으로 시장활동에 대한 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경제적 상황이 다소 호전될 경우 시장의 대폭 축소를 시도할 것으로 보임.

○ 2009년 상반기에도 만성적 식량난으로 인한 주민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북핵문제 및 남북관계 진전과 그에 따른 대북인도적지원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임.

○ 북한은 국제사회에서의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북한 문화예술의 우수성 및 체제우월성을 과시하고자 문화예술의 해외 홍보 및 대서방 문화예술 교류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

○ 교육방법 및 기자재 개선, 교사 재교육 강화, 고등교육 부문의 교육과정 개편 등 정보화 시대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임.

4. 군사 분야

○ 2008년도 하반기 들어서도 군사부문에 있어서 빠짐없이 등장한 것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왕성한 군사 관련 현지도 소식임.

- 12월 24일 현재를 기준으로 김정일 위원장의 총 93회 공개 활동 보도 중에서 50회가 군사 분야로서 절반 이상을 차지

- 이는 지난해 38회에 비해 대폭 증가

- 대외적으로도 북한은 비교적 활발한 군사활동을 벌였으며 그 중에서도 북한과 중국 군사 대표단의 상호 방문활동이 가장 두드러졌음.
 - 10월 중국 공군정치부 문공단(단장: 손곤 공군정치부 부주임) 방문공연(「홍매찬가」 공연: 10.26~27, 동평양 대극장)
 - 북한군 대표단(단장: 김춘삼 상장)의 방중(10.28~11.1)활동
 - 12월 북한군 대외사업일꾼대표단(단장: 연경철 대좌) 중국 방문(12.12) 등

- 중국이외 국가들과의 군사교류활동 또한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
 - 북한군 대외사업일꾼대표단(단장: 안영기 소장)의 몽골 방문(7.15)
 - 북한 공군대표단(단장: 이병철 상장)의 쿠바 방문(11.15~11.25)
 - 베트남 군사대표단(단장: 레반중 국방부 총정치국장) 방북(9.23~27)
 - 시리아 군 대표단 방북(10.2)
 - 베트남 공안성 대표단(단장: 「레홍아잉」 공안상) 방북 및 「호상협조에 관한 합의서」 조인(10.6~9),
 - 몽골 국방성 대표단 방북(11.17~21) 등

- 대남차원에 있어서는 군사적 긴장조성을 위한 다양한 위협활동이 이어졌으며 이는 9월 이후에 더욱 심화됨.
 - 9월 23일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서해상과 중국 접경지역서 대규모 비행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 10월 7일 북한의 서해 상공에서 단거리 미사일 2기 발사 이틀 후 남측 해군이 북한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며 “해상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위기일발의 사태 조성”이라는 주장을 담은 해군사령부 대변인 담화(10.9) 발표
 - 10월 2일과 10월 28일에는 남북군사회담 북측 대표가 우리 민간

인의 대북 “빠라살포 등에 군 실천행동”이라는 강한 군사적 경고

- 북한 군부가 마치 개성공단사업을 좌지우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동 사업에 대하여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함.
 - 11월 6일,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실장인 김영철 중장 등 군부 조사단 6명이 직접 개성공단 현황 점검을 실시하면서 개성공단의 존폐위기 관련 엄포
 - “12월 1일부터 1차적으로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을 담은 장성급회담 북측 대표 전화통지문 전달(11.12)
 - 11월 24일에는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단장이 직접 12월 1일자로 개성관광 전면차단 및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지구의 남한 당국 관련 상주인원 및 차량 선별 추방 입장 통보

- 북한의 이러한 군사적 시위는 대내적으로 대외적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비라는 명분하에 주민동원을 통한 주민통제 및 결속강화로 체제 안정화를 기하는 데 활용되는 측면이 있음.
 - 특히 북한 당국은 김정일 건강 이상 소문 확산에 따른 정치·사회적 이탈현상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에 직면했을 가능성이 있음.
 - 미·일에 대해서는 ‘3각 군사동맹구축’을 통해 ‘일촉즉발의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인민군 창건 76돌 『중앙보고대회』)고 비난하고,
 - 남한에 대해서는 남측 ‘군부를 비롯한 남조선괴뢰당국’이 ‘반공화국대결소동’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 대내적으로 ‘미제의 새 전쟁 도발 책동’에 대비한 정치훈련 및 전투동원 태세를 견지할 것을 독려

- 동시에 북한의 군사적 시위 또는 위협은 6·15공동선언 및 10·4정상선언 전면 이행을 포함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인위적인 행위일 가능성도 큼.
 - 군사적 긴장조성(서해해상 미사일 시험발사 등) → 남한사회 불안심리 조성 → 대 이명박 정부 부정적 여론 확산 → 정책변화 유도 추구하고 같이 일종의 군사적 긴장조성을 통한 정책변화 유도 술책인 셈
- 북한 당국은 금강산 사업, 개성공단 사업 등의 비군사적 사업의 중단 또는 제한활동조차도 북한 군부 주도로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군사적 위협 분위기를 심화시키는 등 전방위적인 위협전술을 구사하고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음.
- 향후에도 북한은 김정일의 활발한 군사 관련 현지도 보도로 군사최고지도자로서의 정통성을 공고화하고 군사우선주의에 입각한 군사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나갈 것임.
 - 이를 위해서 핵무기 및 미사일개발과 재래식 무기 전력향상 노력을 지속하는 태세를 유지하게 될 것임.
- 동시에 대내외적인 군사적 긴장 조성 행위를 지속할 가능성이 큼.
 - 대내적으로 북한은 전투동원 태세 견지를 독려하는 등의 군사적 긴장 분위기를 유지하게 될 것임.
- 북한은 ‘미제의 새 전쟁 도발 책동’과 남한에 의한 ‘전쟁도발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선군사력 건설 및 내부 동원체제 유지를 정당화해 나

갈 것임.

- 특히 미국의 오바마 정부 출범과 함께 6자회담 핵합의 이행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산발적인 군사적 모험을 강행할 수도 있음.
 - 예를 들면 미사일 시험발사 감행 및 핵불능화 조치를 해제하는 핵활동 재개, 서해해상의 군사적 충돌 조장 등 일련의 군사적 위협 조치를 취하고 나설 가능성이 큼.

- 북한은 이러한 일련의 군사적 긴장조성 행위를 통하여 내부체제 단속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정책변화 유도로 남북관계 및 대미관계의 주도권 확보를 꾀하고자 할 것임.

Ⅲ. 북핵 및 대외동향

1. 북·미 관계

- 2008년도 하반기에도 북·미관계는 북핵 협상의 진전과 관련되어 전개됨.
 -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한 45일이 경과한 8월 11일까지 북한과 미국은 북핵신고에 대한 검증체계에 대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함에 따라 부시 행정부는 테러지원국 해제조치 이행을 연기
 - 8월 26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부시 행정부의 테러지원국 해제 연기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불능화 중단 선언
 - 이어 9월 19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얼마전부터 핵시설을 원상복구하고 있으며 테러지원국 해제를 바라지도 않고 우리대로 나가면 될 것”이라 천명

- 8월 26일 성명은 북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음.
 - 우선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는 북한의 핵불능화에 대한 대가이며 검증은 테러지원국 해제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임.
 - 9·19 공동성명은 북한만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며, 핵무기 폐기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검증 역시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과 주한미군에 대한 남북한 상호검증을 강조

- 이후 북한은 9월 22일 국제원자력기구에 영변 핵시설의 감시카메라와 봉인의 제거를 요구한 데 이어 일주일 내 재처리 시설의 재가동을 위협함.
 - 긴박한 상황에서 10월 1일 평양을 방문한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일차적으로 북한이 신고한 영변 핵시설에 국한해서 검증을 하고 우라늄 농축프로그램과 핵확산, 핵무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검증하기로 하는 분리 검증안을 북한과 합의
 - 북한 외무성은 11월 12일 담화를 통해 ‘현장 방문, 문건 확인, 기술자들과의 인터뷰만 검증에 포함되며 쟁점인 시료채취에 대해서는 거부 입장 표명
 - 12월 8일~11일 개최된 제6차 6자회담에서 시료채취를 포함한 북핵 검증의정서 채택을 시도하였으나 북한의 거부로 합의 도출에 실패

- 이러한 협상과정을 거치면서도 북한의 대미비난은 지속, 북한은 ‘키 리졸브·독수리’ 훈련과 11월의 상륙 훈련 등과 관련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격렬히 반발하였으며, 한·일에 대한 핵우산 제공에 대해 핵선제공격론이라고 비난함.
 - 노동신문 논평(7.28)을 통해 평화협정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

2. 북·중 관계

- 중국 국가주석 후진타오와 북경올림픽 개막식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과 공식 만남(8.7)이 이루어졌음.

- 여기에서 양 지도자는 양국관계의 새로운 발전과 북중 우호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을 표명
- 중국은 미북 관계 개선이 북핵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입장에서 미국의 대북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함.
 -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과 미국이 취한 북핵 협상 진전 노력에 대해 “중국은 유관 당사국이 6자회담 진전을 위해 건설적인 노력을 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발표 (10.16)
 - 이어 중국 외교부는 정례브리핑에서도 논평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중국은 의장국으로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면서,
 - “핵 검증 체계와 관련된 문서(검증 이행계획서) 채택 과정에서도 중국은 각 당사국과 밀접한 소통과 협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11.14)
- 중국은 북한의 검증의정서가 6자회담에서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북 에너지 지원 불가 입장과는 달리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은 핵 불능의 대가”라고 밝혀 중유 지원을 계속할 것임을 표명함 (12.16).
- 중북 경제관계는 교역, 투자, 지원 등 여러 방면에서 확대
 - 2008년도 중북 교역은 2007년에 비해 약 16.1%가 증가하여 19.7억 달러에 달하여 200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 중국외교부는 북한과 정상적인 경제·무역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해 “능력이 있는 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11.14)

- 중국이 대북 경협 확대를 지속하는 목적은 우선적으로 자국 경제 발전에 필요한 천연 자원 확보를 위한 데 있음.
 - 중국은 북한과 2008년부터 2년간 기상과학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2007.11.27)
 - 이에 따라 중국은 북한에 기상관련 자재를 지원(9.4)
- 북한의 무역성, 문화성은 공동주관으로 평양인민문화궁에서 “중조 경제및문화합작협정” 체결 55주년 기념행사 개최(11.20)
 - 내각 부총리 노두철, 무역성 부상 이명산, 문화성 부상 한철, 외무성 부상 김형준, 대외문위부위원장겸조중우호협회부위원장 전영진 등이 참석

3. 북·일 관계

- 2008년 6월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회의가 시작되었으며 또 다시 중국 선양(瀋陽)에서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회의(8.11~12)가 개최됨.
 - 당시 새로 기용된 나카야마 료코(中山恭子) 납치담당 장관은 일본측 교섭 대표단에게 신중한 대응을 요구함에 따라 양자 교섭은 심각한 진통을 겪지 않을 수 없었으나 북일 양측은 일정한 합의를 도출
 - 납치자 피해자의 전면적 재조사, 조사위원회 설치 및 종료 일정, 일본 측에 조사내용의 수시 보고, 조사위원회의 발족 그리고 인적 왕래·전세기 왕래 규제 등에 대한 해제조치 실시, 선박의 입항

금지 해제 협의, 요도호 납치 사건 관계자 귀국문제 계속 협의 등이 합의됨.

- 그러나, 2008년 9월1일 후쿠다 총리의 전격사임으로 납치문제 재조사는 연기
 - 후쿠다 총리사임 전격 발표 직후 북한은 조사위원회 설치 연기를 일본 측에 통보
- 아소 새 총리는 취임 직후 유엔 총회연설(2008.9.25)에서 “일본은 북한과의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천명함으로써 납치문제의 해결을 촉구하였으나 각료회의(10.10)에서는 기한이 만료(10.13)되는 ‘대북 경제제재’ 시한을 6개월 재연장할 것을 결정
 - 이어 아소 총리는 납치문제의 해결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각료회의(10.15)를 열어 ‘납치문제의 해결’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강조
- 아소 정권의 이같은 대북 강경정책에 대해 북한 당국이 강력 반발하면서 아소 정권과의 접촉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지속됨.

4. 북·러 관계

- 북·러 양국은 북한정권 수립과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친선 선린 관계를 증진
 -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국경(17.5km)을 맞대고 있는 북·러 양국은 국경 질서에 관한 새 조약안을 마련하기 위해 8월 국경선 재확정

-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짐.
-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메드베데프 신임 러시아 대통령은 광복 63주년을 기념하는 축전을 교환(8.15)하고 전통적인 친선 선린 관계의 발전을 기대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북한 정권수립 60주년(9.9)을 축하하고 북·러간 전통적인 선린관계가 “한반도 및 아시아의 평화, 안정, 안보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하면서 장차 강화·발전될 것”이라고 밝힘.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뇌졸중 등과 관련, 러시아 측은 한국 언론이나 외신만 인용 보도할 뿐 자체적인 취재보도를 일체하지 않음.
- 이는 러시아 정부가 북한 상황의 불안정을 원치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 북·러 양국은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연회와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 등 다양한 축하 행사와 고위급 방문으로 친선관계의 증진을 과시함.
- 주러 북한대사관에서 러시아의 외무부, 연방평의회, 국방부, 경제발전부, 「러·북 정부간 경제협조위원회」, 모스크바시 정부, 모스크바시 내무총국, 「러·북 친선문화협조협회」 등의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연을 개최(10.13)
 - 러시아를 방문한 박의춘 북한 외무상은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회담(10.15)을 갖고 양국간 정치, 경제, 문화 교류를 강화하기로 합의
- 또한 최태복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미로노프 러시아 연방회의(상원) 의장을 만나 “김 위원장이 러시아와 북한 관계 증진에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다”고 전함(11.19).

- 최태복 의장은 미로노프 의장의 북한 방문과 양국 의회 대표단의 정기적 상호교류를 제안했고,
 - 미로노프 의장은 북한측의 초청에 응하면서 자신의 북한 방문 기간에 교류협정 체결 의사 전달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핫가이도에서 개최된 G8 정상회의에서 성명(7.9)을 통해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북한의 모든 핵시설에 대한 신속한 불능화의 중요성 및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의 포기를 강조함.
- 북한이 영변 핵시설 불능화 작업을 중단(8.26)하고 원상복구를 시도한 것과 관련, 러시아 외무부는 북한의 결정에 실망했고 우려한다는 성명(8.27)을 발표하고,
 - “우리는 7월 12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북한이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대한 진실된 약속을 지키고,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를 지속하며, 금년 10월말까지 이 과정을 완료하도록 촉구한다”고 밝힘.
- 이후 미국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10.11)하고 북한이 불능화 작업을 재개한 것과 관련, 러시아 정부는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난 것에 만족을 표시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10.14).
- 북·러 수교 60주년 기념을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한 박의춘 외상은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회동(10.15)하고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이후 전개될 북핵 협상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 제6차 6자회담 3차 수석대표회의(10.8~11)의 결렬에도 불구하고 브로다브킨 러시아 외무차관은 불능화가 진행되는 한 대북 중유 지원도 계속한다는 입장을 표명(12.13)
- 또한 「러시아의 소리」방송(8.25)에 의하면, 러시아의 「아브토바즈사」가 북한에 600대의 ‘라다-2170’과 250대의 ‘라다-4’ 승용차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함.
 - 러시아의 투자회사는 북한 진출을 위해 이 승용차를 무상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 북한은 TU-204 신형 여객기 1대를 구입(2007.12)한 데 이어 2008년 1대를 추가 도입했고, 향후 노후한 여객기들을 러시아산 신형 비행기로 교체할 계획인 것으로 보도(10.22)
- 향후 오바마 미국 민주당 정부의 등장으로 북·미 관계 진전이 예상되므로 러시아는 정부와 의회의 고위인사 교류 확대 등을 통해 대북 관계를 이전보다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미 양자회담 보다는 6자회담 틀 내에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
- 세계 금융위기 심화와 국제원유가 폭락으로 인한 러시아의 2009년 경제성장률 3%대 전망, 북한의 만성적 경제난 등으로 북·러 경제 관계는 답보상태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IV. 대남 동향

- 금년 상반기까지 북한의 대남공세는 대내외 여건상 구두 비난에 그쳤으나 하반기 들어서 행동에 돌입하였음.
 - 북경올림픽 폐막, 식량난 호전, 비핵화 진전, 테러지원국 해제 등으로 북한의 행동이 보다 자유스럽고 과감해짐.

1.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 발생

-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이 발생하자 사고의 책임이 전적으로 남측에 있다고 적반하장식 주장을 하며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까지 관광 중단을 선언함.
- 8월 3일 북한은 조선인민군 금강산 지구 군부대 대변인 특별담화 형식을 통해 금강산 지구의 불필요한 인원 추방, 군사분계선 통과에 대한 엄격한 제한 및 통제, 금강산 관광지구와 군사통제 구역내 사소한 적대행위에 대한 강한 군사적 대응조치를 예고함.

2.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하여 강력 항의

- 북한의 제의에 의해 10월 2일 개최된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북한은 남한의 삐라살포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함.

- 10월 27일 열린 군사실무회담에서는 뼈라살포가 중지되지 않을 경우 개성공단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며 군사분계선 통행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함.

3. 개성사업 부분 차단 조치

- 북한은 개성공단사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수차례의 구두 경고 후 11월 6일 국방위원회 정책실장인 김영철 중장이 개성공단을 방문하여 폐쇄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행동을 개시하기 시작함.
- 북한은 11월 12일 판문점 적십자연락사무소를 폐쇄하고 북측 대표를 철수시키며 직통전화를 단절시키겠다고 하였으며 11월 24일에는 12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통행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힘.

4.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 촉구 지속

- 북한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며 대남 비방의 주요 소재로 활용하였음.
- 6·15와 10·4선언을 북한의 전유물화하여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이명박 정부에 돌리고 남남갈등을 부추기려 함.
 - 북한 책임론에 대하여는 강력 반발

5.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 강화

- 초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난을 넘어서 정권 자체에 대한 비난으로 확산하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하여 욕설을 포함한 인신공격을 강화함.
- 상반기 촛불시위 때와 마찬가지로 경제난 등으로 이명박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명박 정부에 대한 투쟁을 노골적으로 선동함.
- 미 대선에서 오바마 후보의 당선으로 진보세력이 고무되었으며 그동안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원정화 간첩사건, 김정일 건강이상설 등으로 잠잠했던 진보세력들을 결집할 수 있는 기회로 판단함.

6. 소 결

가. 방어적 차원의 선제공세

-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얻는 경제적 이익은 개성공단(2~3천만불), 금강산(2~3천만불), 인도적 지원(1억5천만불), 일반교역(3~4억불) 등 다양함.
- 이 중 일반교역을 살리기 위해 개성공단을 방패삼아 배수의 진을 칩.
 - 이미 금년도 일반 교역 감소 추세에 대한 불안감

- 당장 ‘작은 손실’을 입더라도 궁극적으로 이명박 정부를 굴복시키면 ‘핵심이익’을 지킬 수 있다는 계산 하에 남북관계의 부분적 경색을 감수함.
- 실리적인 면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은 물론이고 핵문제 해결없이 개성공단의 확대가 불가능하다는 것과 금강산 관광중단의 조기 재개가 어렵다는 것도 북한의 태도를 강경하게 하는 요인임.
- 그러나 개성공단의 완전폐쇄는 남북관계의 완전한 단절로 이어져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각오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 개성근로자와 가족들(10만명 이상)의 불만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부담도 있음.

나. 한미공조 훼손

- 이명박 정부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을 통해서 남남갈등을 부추김으로써 한·미공조를 훼손시키고자 함.
 - 예컨대, 이명박 정부의 『개념계획 5029』에 대한 협조와 북·미관계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발언권을 약화시킴.
- “한미공조의 강화가 남북관계의 진전에 도움이 된다”는 이명박 정부의 가정을 부정하고, 오히려 “북·미관계의 개선을 통해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과시함.
 - 새로 출범하는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경고 메시지

다. 내부 결속

- 최근 북한은 내부결속을 위해 사회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여 왔으며 적당한 수준의 대외긴장을 필요로 함.
 - 시장단속, 협동농장 단속, 배급제 부활 노력
 - 당세포비서대회, 지식인대회, 당중앙집중검열 등 통제 강화

- 내부통제 강화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도 대외 긴장이 필요함.

- 김정일 건강악화로 충성심 과시차원에서 대남강경기조 유지함.

V. 종합 평가

- 북한은 내부체제 결속을 다지면서 대미 관계 개선에 올인하는 한편, 남북관계는 당분간 긴장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냄.

1. 내부 결속 도모

- 2008년도 수확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장단속과 배급제 부활 시도 등으로 지역별 기아사태 발생가능성이 있음.
 - 배급이 원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기능의 쇠퇴로 취약계층의 식량조달 난관
 - 북한의 기근은 식량 총수급 실태보다 유통구조에 의해서 더 큰 영향
- 남북관계 악화,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수입감소로 경제난이 가중됨.
 - 남한의 식량·비료지원, 금강산 관광중단, 일반교역 감소
 - 원자재의 국제 가격 하락으로 대중국 수출이 급감함에 따라 북한 당·군·보위부 등의 주요 기관 수입감소
- 각종 통제체제의 강화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됨에 따라 내부 결속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시됨.
 - 특히, 김정일의 건강악화로 충성심 과시와 체제결속 필요성이 절실함.
-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선거가 연기되는 등 정치일정에 다소 차질이 발행하였으나 김정일이 건강악화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49회와

큰 차이 없이 하반기 46회의 현지지도를 소화하는 등 내부 결속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였음.

- 김정일의 와병 중 장성택의 위임 통치로 위기를 관리하고,
- 하반기 내각의 상 5명 교체 등을 통해 체제정비 단행

- 향후 북한의 대내외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사상적 이완과 동요를 막기 위한 사상교육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것으로 전망됨.

2. 대미관계 올인

- 북한의 목표는 미국으로부터 안전보장을 확보한 후 외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는 데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임.
- 대외정책에서 외교와 포용을 중시하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테러지원국 해제의 모멘텀이 이어져 북·미관계가 진전되길 원하나 실제 성과는 불확실함.
 - 북한은 핵군축차원에서 북한핵과 미국핵을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 불능화와 테러지원국 해제로 2단계 비핵화를 종료하고, 3단계에서 평화협정, 핵군축문제, 미사일 문제 등을 동시에 다룸으로써 검증문제를 희석시키고자 함.
- 북핵문제의 급진전은 쉽지 않으나 고위급 인사의 상호방문 등 이벤트성 성과는 가능함.

3. 대남 긴장

- 당분간 북한의 대남 강경태도는 계속될 것이며 단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살라미 전술을 전개할 것임.
- 그러나 남북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기보다는 단절 직전까지 몇 단계 긴장을 고조시키는 벼랑끝 전술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됨.
- 남북관계의 완전단절 혹은 군사도발은 대내외 여건상 유동적임.
 - 남북관계 회복시 어려움이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며 자칫 남북 교역 전체가 파탄
 - 특히, 북한의 군사위협이 미국의 관심을 끌고 북·미관계를 진전시키려는 의도이기 때문에 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발 가능성은 유동적
- 당분간 미국의 태도를 지켜볼 것으로 보이나 미국의 반응이 기대에 못 미치고 북·미관계마저 파탄난다면 북한의 태도는 이판사판식으로 보다 강경해질 것으로 전망됨.
 - 개성공단의 완전폐쇄는 물론 총참모부 대변인의 협박(2009.1.17)과 같이 군사도발 가능성
- 북한의 강경 태도는 북한이 처한 절박한 상황에 대한 반증이기도 함.
-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 내부사정에 따라 북한의 태도변화 필요성이 증대할 때 이명박 정부가 출구를 마련해 주면 북한의 태도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음.
 - 남북관계의 새로운 거래방식 정착의 계기를 마련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6-01	Cooperativ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전성훈	저	10,000원
2006-02	한반도 경제통합 모형의 이론적 모색	임강택	저	7,000원
2006-03	7·1조치 이후 북한의 농업개혁과 과제	최수영	저	5,000원
2006-04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성과 한국경제의 영향력	이 석	저	8,000원
2006-05	동북아 경제·안보 협력의 연계: 4대 분야 협력체 형성 중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6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6-07	북한 경제개혁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연구 -개혁의 부작용을 통해 본 북한 체제전환의 성공과제-	김영운	저	10,000원
2006-08	남북한 공유하천 교류협력 방안	손기웅	저	6,000원
2006-09	북한의 당·군·민 관계와 체제 안정성 평가	정영태	저	7,500원
2006-10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 연구	황병덕	저	8,500원
2006-11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연구	서재진	저	10,000원
2006-12	평화통일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조 민	저	6,500원
2006-13	중국의 대북한 정책: 지속과 변화	최춘흠	저	5,000원
2006-14	한·미 안보관계의 변화와 북·미관계의 전망	박영호	저	7,000원
2006-15	동북아지역의 갈등 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6-16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	임순희	저	8,000원
2006-17	개혁·개방과정에서 인권의제: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저	10,000원
2006-18	경제난 이후 북한 문화에 나타난 주민생활 변화	조정아	저	6,000원
2006-19	남남갈등해소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2007-01	남북한 재외동포정책과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	최진욱	저	6,500원
2007-02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김수암	저	6,000원
2007-03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 내구력	서재진	저	8,500원
2007-04	“확산방지구상”(PSI)과 한국의 대응	전성훈	저	10,000원
2007-05	통합정책과 분단국 통일: 독일사례	손기웅	저	7,000원
2007-06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7-07	북·중 경제관계 확대와 대응방안	최수영	저	6,000원
2007-08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전략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7-09	북한군대의 대내외 정세 인식 형성과 군대변화	정영태	저	6,000원
2007-10	평화변영정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허문영 외	공저	9,000원
2007-11	비교사회주의 측면에서 본 북한의 변화 전망 : 리비아와 쿠바 사례를 중심으로	정영태 외	공저	7,000원
2007-12	미·일동맹 강화에 따른 동북아정세 변화와 한국의 안보정책 대응전략	김국신 외	공저	8,500원
2007-13	아베정권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	배정호	저	6,000원
2007-14	중국의 대북 정책과 2·13합의에 대한 입장	최춘흠	저	5,000원
2007-15(I)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 연계 추진방안	김규륜 외	공저	10,000원
2007-15(II)-1	동북아 지역협력의 새로운 연계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II)-2	New Linkages of North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II)-3	北東アジア地域協力の新たな連係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II)-4 东北亚区域合作的新联系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6 남북 물류·운송 활성화 및 협력방안 연구	김영운 외	공저	8,000원
2007-17 북한의 통계: 가용성과 신뢰성	이 석	저	8,500원
2007-18 북한 사회개발협력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2007-19 북한주민의 거주·이동: 실태 및 변화 전망	이금순	저	7,000원
2008-01 북한체제의 안정성 평가 시나리오 워크숍	최진욱 외	공저	9,000원
2008-02 한반도 선진화를 위한 남북 경제관계 발전방안 모색	임강택 외	공저	10,000원
2008-03 남북한 출입제도 [통행·통신·통관] 개선 및 정착 방안 연구	김영운	저	8,000원
2008-04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변화와 대북전략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8-05 중국의 한·중 FTA 추진의도와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	전병근, 구기보	저	7,500원
2008-06 한반도 통일외교 인프라 구축 연구	박영호 외	공저	9,000원
2008-07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조정아 외	공저	10,000원
2008-08 김정일 정권 등장 이후 북한의 체제유지 정책 고찰과 변화 전망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8-09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의 추진환경과 정책과제	박형중 외	공저	6,500원
2008-10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전략: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저	9,000원
2008-11 North Korea's External Economic Relations	김규륜	저	9,000원

학술회의총서

2006-01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10,000원
2006-02 한반도 평화포럼: 구상과 이행			9,500원
2006-03 동북아구상과 남북관계 발전전략			10,000원
2006-04 Political Economy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ism : Linkages between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9,500원
2006-05 The North Korean Nuclear Test and The Future of Northeast Asia			7,000원
2007-01 2·13 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8,500원
2007-02 6·15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10,000원
2007-03 2007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9,000원
2008-01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10,000원
2008-02 The Vision for 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and the Korean Peninsula			9,500원

협동연구총서

2006-04-01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 총괄편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4-02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I): 안보전략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4-03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II): 경제전략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11-01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2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10,000원
2006-11-03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상)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4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중)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5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하)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1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총괄편)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2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7-10-01 동북아 지역내 NGO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6,000원
2007-10-02 한반도 통일대비 국내NGOs의 역할 및 발전방향	손기웅 외	공저	9,000원
2007-10-03 동북아 NGO 교류·협력의 인프라 개선과 NGO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	최대석 외	공저	7,500원
2007-11-01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7-11-02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와 개념적 틀	임성학 외	공저	6,000원
2007-11-03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배정호 외	공저	6,500원
2007-11-04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함택영 외	공저	6,000원
2007-11-05 대북정책 참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전성훈 외	공저	6,500원
2007-11-06 남북경협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김규륜 외	공저	8,000원
2007-11-07 남북한 사회문화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7-11-08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를 중심으로	양현모 외	공저	7,500원
2007-11-09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박광기 외	공저	8,500원
2008-07-01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모형개발 및 발전방안(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6,500원
2008-07-02 남북 교류협력 효율화를 위한 거버넌스 모형구축	양현모, 이준호	저	6,000원
2008-07-03 북한의 국가·사회관계와 통일정책 거버넌스	최진욱 외	공저	7,000원
2008-07-04 남북연합 형성·운영의 거버넌스	박종철 외	공저	8,000원
2008-08-01 국제사회의 개발지원 이론과 실제: 북한개발 지원을 위한모색(총괄보고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8-08-02 국제 개발이론 현황	이금순 외	공저	8,000원
2008-08-03 국제사회의 원조 현황 및 추진전략	임강택 외	공저	10,000원
2008-08-04 UN기구의 지원체계와 대북 활동	최춘흠 외	공저	6,500원
2008-08-05 양자간 개발기구의 체계와 활동	권 율 외	공저	10,000원
2008-08-06 다자간 개발기구의 체계 및 활동	장형수 외	공저	10,000원
2008-08-07 국제 NGO의 원조정책과 활동 연구	이종무 외	공저	8,000원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200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2호 (200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6권 1호 (200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6권 2호 (200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7권 1호 (2008)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7권 2호 (200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1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2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6, No. 1 (200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6, No. 2 (200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Vol. 17, No. 1 (200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Vol. 17, No. 2 (2008)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6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6</i>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7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7</i>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8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8</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독일통일백서

2006	2005 독일통일백서	8,500원
2008	2006 독일통일백서	8,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06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6~2007	6,000원
2007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7~2008	6,0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06-01	2006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허문영, 서재진, 임강택, 전현준, 정영태, 최진욱
2006-02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결산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전현준, 김영운
2006-03	2005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6-04	북·중관계 강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책	박종철, 김국신, 최수영, 허문영, 전병곤
2006-05	중·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6-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4차 회의 결과분석	서재진, 김영운
2006-07	주일미군 재편의 의미와 시사점	김국신, 배정호
2006-08	북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4년의 평가와 전망	김영운
2006-09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0	아베 정권의 출범과 대한반도 정책 전망	배정호
2006-11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	김국신, 박영호, 배정호, 여인곤, 최춘흠
2006-12	미국 중간선거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3	APEC 정상회의의 결과분석	김규륜
2007-01	2007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허문영, 김영운, 박영호, 서재진, 전현준, 정영태
2007-02	2·13 북핵 합의이후 북한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여인곤, 이금순, 정영태, 조한범, 최수영
2007-03	2006 미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7-04	‘2·13합의’ 전후의 북한동향	이교덕, 임순희, 정영태, 최수영
2007-05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책 변화 분석	전성훈

2007-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5차 회의 평가		최수영
2007-07	7·1조치 이후 5년, 북한경제의 변화와 과제		최수영
2007-08	상반기('07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2007-09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결과분석	김국신,	여인곤
2007-10	7·29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분석		배정호
2007-11	북한의 「전국 당세포비서 대회」 개최 배경과 전망		정영태
2007-12	후쿠다 정권의 특징과 대외 및 대북전략		배정호
2007-13	러시아 총선(12·2) 결과분석		여인곤
2007-14	하반기('07년 7월~12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2008-01	2008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정영태, 김영윤, 박영호, 서재진, 임순희,	허문영
2008-02	중국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결과분석: 지도부 개편을 중심으로		전병곤
2008-03	최근 북한 권력엘리트 변동 분석		전현준
2008-04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배정호
2008-05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분석		최수영
2008-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6차 회의 결과분석		최수영
2008-07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 평가	이금순, 김수암	
2008-08	2단계 비핵화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 전망	최진욱, 박형중	
2008-09	남북 이산가족문제: 평가와 향후 정책 방안		임순희
2008-10	상반기('08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서재진, 정영태, 전현준, 최수영, 최진욱, 임순희,	조정아
2008-11	아소 정권의 출범과 대외전략노선 및 대북전략		배정호
2008-12	한·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9-01	2009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박영호, 박형중	
2009-02	2008년 하반기 북한 정세 분석('08년 7월~12월)	최진욱, 임순희,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06-01	남북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김영윤
2006-02	2006년 QDR의 특징 분석과 한반도안보에 주는 시사점		박영호
2006-03	북한 개발협력을 위한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		임을출
2006-04	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추세와 한국의 정책방향		김규륜
2006-05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과 우리의 정책방향		전현준
2006-06	국내외 북한인권 동향 평가와 인권개선 로드맵		서보혁
2006-07	북한군 최고사령관 위상 연구		고재홍
2006-08	평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와 통일과정에서의 활용 방안		이현근
2006-09	김정일 정권의 정세인식: '선군'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전미영
2007-01	북핵 '2·13합의' 와 평화적인 핵폐기 사례 분석		전성훈
2007-02	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조한범
2007-03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방안	김수암, 이금순, 최진욱, 서은성	
2007-04	한미동맹 그리고 북한과 동북아 2001~2007년간의 회고와 한국의 정책 대안		박형중
2007-05	주변 4국의 대북정책 동향과 전망: '2·13합의' 이후부터 남북정상회담까지를 중심으로	여인곤, 김국신, 배정호,	최춘흠
2007-06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개입: 조건, 시나리오 및 과제		임을출
2007-07	평화조약의 역사적 변천과 사례: 한반도평화체제에 주는 시사점		최진욱
2007-08	북핵 폐기 한반도 모델: 기본원칙과 추진방향		전성훈

2008-01	남북 상생·공영을 위한 비핵·개방·3000 정책의 이론적 체계 연구	서재진
2008-02	향후 5년 남북관계 주요 환경과 전개 시나리오	박형중, 허문영, 조 민, 전성훈
2008-03	북한의 기상관리 정책의 변화와 남북한 기상협력 방안연구	최은석, 황재준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2006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1호	임순희, 이금순, 김수암
2006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2호	임순희, 이금순, 김수암
2007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2권 1호	이금순, 서재진, 김수암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2권 2호	이금순, 최진욱, 김수암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3권 1호	이금순, 김수암, 임순희

월간 북한동향

2007	월간 북한동향 제1권 제1호	북한연구실
2007	월간 북한동향 제1권 제2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1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2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3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4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5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6호	북한연구실

한반도 평화체제 연구총서

2007	한반도 평화체제: 자료와 해제 제1호	허문영, 김수암, 여인곤, 정영태, 조 민, 조정아
------	----------------------	------------------------------

Studies Series

2006-01	The North Korean Penal Code, Criminal Procedures, and their Actual Applications	Kim Soo-Am
2006-02	North Korea's Negotiation Behavior toward South Korea :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st Inter-Korean Summit Era	Huh, Moon-Young
2006-03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utlook for Unification	Cho, Min
2006-04	A Study on the structure of industry in North Korea	Choi, soo-young
2006-05	The Border-crossing North Koreans: Current Situations and Future Prospects	Keumsoon Lee
2006-06	North Korea's Human Resource Development System	Cho, Jeong-Ah
2007-01	Value Changes of the North Korean New Generation and Prospects	Lim, Soon-Hee
2007-02	North Korea's Civil-Military-Party Relations and Regime Stability	Jeung, Young-Tai
2007-03	An Assessment of the North Korean System's Durability	Chon, Hyun-Joon, Huh, Moon-Young, Kim, Philo, Bae, Chin-Soo

2007-04	A Study on the Reality and Prospect of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 Tasks for Successful Trans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System	Kim, Young-Yoon
2007-05	North Korea's Agricultural Reforms and Challenges in the wake of the July 1 Measures	Choi, Soo Young
2007-06	The Changes of Everyday Life in North Korea in the Aftermath of their Economic Difficulties	Cho, Jeong-Ah
2008-01	Conceptions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Kim Soo-Am
2008-02	Internal and External Perceptions of the North Korean Army	Jeung, Young-Tai
2008-03	PSI and the Korean Position	Seongwhun Cheon
2008-04	Transformation of the U.S.-Japan Alliance and South Korea's Security Strategy	Kim Kook-shin, Yeo In-kon, Kang Han-koo
2008-05	Changes in North Korea as revealed in the Testimonies of Saetomins	Lee Kyo-Duk, Lim Soon-Hee, Cho Jeong-Ah, Lee Gee-Dong, Lee Young-Hoon
2008-06	Economic Hardship and Regime Sustainability in North Korea	Suh, Jae-Jean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정기회원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정기회원제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회원의 구분

- 1)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2)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가입방법

- 1) 「도서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2)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3)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가입기간

- 1)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 회원으로서의 자격유지
- 2) 회원자격을 계속 유지하실 분은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연회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4. 회원의 특전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15-20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협동연구총서(연평균 5-10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5. 회원가입 문의

- (142-728)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수유6동) 통일연구원
-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전화: 901-2559, FAX: 901-2547)

※가입기간중 주소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하반기 북한 정세 분석 (’08년 7월~12월)

통일정세분석 2009-02

발행처	통 일 연 구 원
편집인	통일연구원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전화 : 901-2525(代), 팩스 : 901-2544
인쇄처	양동문화사 전화 : 2272-1767
인쇄일	2009년 1월 일
발행일	2009년 1월 일
